



# 食品은消費産業아니다

— 偏見없어져야 適正 政策支援 可期 —

尹 奎 章  
(韓國産業政策研究所 常任研究委員)

## 1. 經濟·社會的 存在意義

食品工業의 重要性은 國內外를 莫論하고 날이 갈수록 加重되어 가고 있다. 그 理由의 몇 가지만 列擧해 보더라도 ① 世界人口의 增加가 爆發的事實으로 化해져 앞으로 約4半世紀 後인 2,000餘에는 現在의 約倍인 80億名線에 達할 것을 各國의 專門家들이 異口同聲하고 있는 것 ② 世界人口의 激增이 食糧需要의 急增을 不可避케 할 것인데 이같은 食糧需要의 增加가 食糧增産을 알지 못할 것으로 憂慮되는 것 ③ 人類의 食生活構造가 米麥(大·小麥)을 中心으로 하는 穀類絶對爲主에서 더욱 多樣化할 것 ④ 國際市場에서의 食品比重이 顯著하게 커져 外貨獲得의 主宗品目化할 것 ⑤ 특히 食糧의 輸入依存度가 높은 나라에서는 穀類中心의 食生活에서 多樣한 加工食品生活으로 大幅轉換을 通해 食糧輸入用 外貨를 節約할 수 있는 것 ⑥ 生産技術 및 施設의 多樣性으로 말미암아 加工食品의 食生活을 위한 資源節約效果가 甚大한 것 ⑦ 生活費중에서 가장 優先하는 것이 食工品이다. 따라서 食生活費의 節減이 貯蓄增大에 寄與하게 되는 것 ⑧ 雇傭力이 老大的인 것 등등이 食品工業의 커다란 經濟·社會的 存在意義인 것이다.

## 2. 先入觀에서 빚어진 偏見도 없지 않아

그런데 世間에서는 食品工業에 대한 先入觀의인 偏見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으며 특히 關係當局에서 마저 그 誤認이 拂拭되어 있지 않는 듯이 여겨지는 것은 國民食生活改善을 비롯한 前記 8가지의 目的達成을 위해서 問題點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말한 偏見이란 食品生産業을 마치 消費助長産業인것 같이 그릇 評價하는 경우를 뜻한다.

생각컨대 이 같은 偏見은 韓·日合邦이란 歷史的不幸이 빚어진 데서 「食工品을 奢侈品」 「食工品の 生産業을 消費産業」視하는 誤判으로 싹트게 된것이 었다.

즉 日本商人들이 과자·사탕과 더불어 上陸하였을 當初에 우리國民은 民族的 感情까지를 섞어서 憎惡의 눈으로 이를 奢侈性 消費品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後 世界의 食品은 더욱 多樣化하여 米麥등 主穀에 依한 飯食을 대신하는 食品化하였다. 뿐만 아니라 各種의 衛生·營養飲料들도 뒤를이어 研究 生産됨으로써 食工業은 飲食工業으로 擴大 強化 해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斯界 發展過程이다.

食品産業의 重要性은 위에 列擧한 8가지 外에도 炊事時間의 節約, 非常時食事, 空間의 制約에서 解放되는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長點에 想到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現代人の 生活은 더욱 더 時間에 쫓기게 마련이므로 家庭單位로도 在來式의 炊事時間을 하루의 生活計劃에 割當하기가 어렵게끔 된다. 때문에 아침食事は 밤 대신에 빵食事로 轉換하는 家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도 아니다. 工産食品이 非常時에는 특히 緊要한 役割을 하는 大量食料이므로 平素에 適正量의 備蓄이 必要하다.

그리고 山野의 公私 모임에 있어서 携帶食事用으로 더 할 수 없이 便益한 것이 또한 加工食品이다.

이와같이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받지 않은 經濟的인 加工食品의 흐름에 따라서 改善과 開發을 持續하고 있는데 世界斯業界의 前進隊

列에서 落伍되지 않기 위해서는 政策支援에 期待 해야할 바 자못크다.

### 3. 希求되는 適正 政策支援

食品工業이 應分の 政策的 支援을 받자면 食品工業이 지니고 있는 바의 經濟的·社會的인 重要性에 대한 政策感覺이 加速 形成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위에서 言及하였듯이 食品工業을 消費助長産業으로 보고 있지 않나하는 印象을 關係當局으로부터 받게하는 例들에 흔히 부닥치기 때문이다.

食品工業의 世界的次元에서의 重要性보다도 훨씬 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아래에 個別言及하려는 바와 같이 ① 食糧 輸入 依存度가 높고 ② 아직 額數가 많은 業種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年平均 200%씩 늘어나는 輸出成長의 推移이며 ③ 社會問題인 同時에 經濟問題인 「雇傭效果」가 크고 ④ 資本과 技術의 海外進出이 急前進을 期待할 수 있는것 외에도 여러가지가 豫見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實績에 依하는 限 食品工業에 대한 政策支援은 工業으로서의 그 重要度와 큰 距離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背景을 이루고 있는 것이 食品工業에 대한 消費産業觀, 나아가서는 相當數의 品目을 奢侈品視하는 그것이 아닌가고 생각되기까지 한다.

食品工業의 健全한 育成을 통해서 그 지니고 있는바 經濟的및 社會的인 寄與可能性을 發揮하도록 앞으로의 政策은 ① 施設近代化를 위해 ② 海外市場의 擴大開拓의 促進劑로써 ③ 技術의 開發및 導入의 促進을 위하여 ④ 新製品開發의 助長策으로 ⑤ 國際收支改善의 一環策이란 觀點에서 稅制및 金融의 側面을 통한 應

分の支援이 있어야 할 것으로指摘되고 있다.

에로부터「民은以外食爲天」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食生活의 科學化, 多樣化, 近代化의 모든 源泉인 動機와 結果가 食品工業과 直結된 오늘날이고 보면「以食爲天」과 食品工業과의 無距離感을 느끼게도된다.

#### 4. 先進國의 3 倍가될 後進國의 人口增加率

世界의 人口增加, 特히 後進國의 人口增加豫測은 人類生活의 앞날이 食糧의 側面에서 크게 危脅하고 있음을 切實히 느끼게 한다.

UN統計에 따르면 世界人口의 增加豫測으로 1970—85년에 先進國은 年率0.9%增加인데 後進國은 그 3倍에 가까운 2.4%이다 뿐만 아니라 1970—90年의 豫測 또한 같은 比率의 增加로 되어 있으므로 人口增加率의 調節이 容易하지 않음을 알수있다.

後進國의 人口增加가 産兒制限, 家族計劃등의 政府政策과 民間團體의 啓蒙과 努力을 外面하는 樣1970—90年의 長長20年 동안에 걸쳐 緩和되지 않을 展望인 것은 主로 그 所得增大豫測에 緣由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1960—70年에 年率 2.3%의 增加이었던 後進國의 人口을 위에서 알수있듯이 1970—90年은 도리어 年率 2.4%로 上昇할 豫測을 하게된 것이다. 그런데 注目할만한 또하나의 事實은 先進國의 人口增加率의 調節도 限界點에 到達하였다는 點이다.

즉 1960—70年에 年1.1%의 增加이었던 先進國人口가 1970—85年에는 年平均0.9%로 그 增加率이 낮아질 豫測인데 1970—90年의 그것도 0.9%인 同率로 UN이 豫測하지 않을수 없게된 것이다.

한편 自由陣營의 後進國만을 分離해서본 UN 統計또는 1960—70年이 年2.6%이었던 實績보다 더높은 2.7%에 이를 1970—85年 및 1970—90年의 增加豫測이다.

이는 自由後進國의 所得水準이 70年代 以後에 높아지는 狀態가 持續될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增加率은 先進國의 年0.9%의 3倍에 該當된다.

또 自由世界 및 共產測을 合한 後進國人口가 世界人口의 約 $\frac{3}{4}$ 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이 問題點의 核心이라 아니할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世界人口 增加 問題의 해결은 人口문제 이외의 境지에서 추구되어야 하겠음된 것이다. 또 다시 말하자면 世界人口가 앞으로 年 2%線의 증가는 불가피 하다는 前提로 해서 食糧問題등 이에의 對應策을 摸索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後進國에 있어서의 高率人口增加要因은 所得增加豫測以外도 많다.

衛生觀念이 向上되고 平均壽命의 急激한 上昇率이 先進國을 凌駕하는것 등은 그 主된 例들이다.

#### 5. 15年間의 食糧需要增加가 先進國 27%, 後進國 72%

食糧의 概念이 달라졌다. 過去의 그것은 粟 小麥 보리·콩및 其他穀類를 뜻해왔으나 지금은 그幅이 크게 넓어졌다.

또 田畝등에서 탄이 아니라 山과들. 바다등 廣漠한 거의 全空間에서 새食糧이 開發. 活用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食糧이 漸次 多樣化하고 量的으로 急增하는데도 不拘하고 食糧問題의 前途에 危險信號가 걸려있는 것은 別項과 같이 人口增加에 대한 抑制效果가 期待線을 下

廻하고 人口增加以外的 要因에도 緣由해서 需要增加가 顯著해지는것이기 때문이다.

需要增加率을 先·後進國別로 豫測해본다면 1970—85 年에 先進國은 年1.6%. 後進國은 年3.7%의 各增加豫測이다. 이래서 70年에 比한 85年의 增加率은 先進國이 27%. 後進國은 72%로 나타나 있다.

이와같이 後進國의 食糧需要 增加率이 先進國의 約3倍에 達할 豫測인것은 앞으로 食糧의 問題意識이 後進國에서 더욱 透澈해져야 할것을 促求한다. 도 食糧對應策이 後進國 스스로의 自覺과 創意에 依할것은 勿論. 先進國 支援에 期待되는바도 크다.

## 6. 食品工業의 높은 雇傭力

雇傭力이 龍大한點은 食品工業의 重要性을 말해주는 또하나의 事實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國內大메이커는 韓國食品工業協會 傘下의 27個 業體와 일부 業體에 그치고 있지만 全國 食品業界의 製造·加工業者의 數는 實로 約1萬9千個에 達하고 있다.

此等業者가 平均 5人만의 從業員을 保有하고 있다고 假定해 보더라도 그 總數가 10萬을 가깝게 바라보게 된다.

또 그들이 5人家族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50名萬이상의 多數 國民이 食品工業의 그늘 밑에서 生活를 營爲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食品流通過程의 販賣業者 分野는 그 業者數를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때 食品工業및 食品販賣業의 雇傭面을 통한 社會寄與가 그 어느 業種보다 甚大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世界經濟의 短期展望으로 77年 1年을 내다 보더라도 ①失業者가 增大할것 ②인플레이再發의 憂慮가 깊어지는것 ③資源내셔널리즘의 再

現可能性도 없지 않은것 ④保護貿易政策이 先進工業國을 비롯해서 더욱 強化될 것 등을 豫想할 수 있다. 특히 失業問題와 인플레이問題가 核心이다.

돌이켜 볼때 世界의 不景氣를 73年 겨울 '오일쇼크'가 몰고왔고 그 本格的인 회복을 본 時點이 어느때 이었던가를 正確히 指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 1年前의 일이었다고 말할수는 있었고 그 回復의 主導役이 美國·西獨·日本의 3大國인것에는 說明의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世界24個 先進工業國의 集結協力體인 OECD 構成員중에서도 景氣 회복의 凱歌를 앞장서서 올리고 나아가서는 世界 經濟의 回復推進役을 擔當해온 美·西獨·日本등의 休業率도 景氣회복에 比例한 調整效果를 나타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景氣가 회복되었는데도 이에 따라서 失業者가 줄지는 않는다. 또 이같은 現象이 내년에는 더욱 顯著해질 것이라는 豫想이 IMF, EC委員會등에 依해서 밝혀지고 있다. 元來失業者問題가 社會및 經濟問題란 2重의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는 意味에서 注目된다.

우리나라의 失業率은 계속 漸減狀態이므로 크게 多幸한 일이다.

그러나 各先進國들의 輸入規制가 強化될 展望인 것등을 勘案하여 食品工業 및 其他雇傭力이 큰 產業에 대해 政策支援이 두텁게 배풀어져야 할것은 너무도 明白한 事理라고 하겠다.

## 7. 原料消費節約工業과 國民의 消費節約

우리의 경우는 韓國的인 食品工業의 重要性을 各별히 안고 있다.

그 例를 들자면 ①每年 300萬톤의 外穀導入을 하여야만 하는 食糧面에서의 輸入依存國인

것 ② 長期 經濟開發計劃이 지난 62년부터 시작된 後 가장 重要한 發展段階인 4次經濟開發 5개년 計劃을 (77—81)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해서 일것 등이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國產食糧의 需給側面에는 아직 根本的인 問題點이 도사리고 있다.

2大主穀 즉 쌀은 勿論이고 보리까지 自給 自足段階에 이르렀다고 結論되어 있다지만 前記한 바와 같이 年間 300萬톤 規模의 外穀導入이란 莫大의 負擔感에서 벗어나 어깨를 펴달이 事實上 언제쯤 일까고 생각할때 마음어두어 지게 되는바 없지도 않다.

그리고 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3次 5個年計劃의 例와같이 超過達成을 이룩하자면 內資 動員에서 成功해야할것 등 여러가지의 要素가 손꼽혀진다 그런데 그중에서의 食糧問題比重은 지금 政策樹立家들의 問題意識度가 좀더 높아져야만 할 程度이다.

食糧增産이 緊切한 食糧 問題解決의 重要關鍵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增産을 위해서는 耕地面積의 確保, 全天候營農, 適正量의 資金

(p 100계속) \*\*\*\*\* 하는 하나의 뚜렷한 “척도”가 됨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과자의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美國의 Snack 製品은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年以來 과거 10年동안 대부분이 倍以上으로 신장했고 Corn Chip, Meat Snack, Toaster Pastrie 같은 제품들은 3倍以上, 또 Frozen Snack, Pizza 등은 4倍以上의 신장을 보였으며 特히 Popped Corn은 14倍以上 증가 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방후 美軍이 우리 나라에 처음 왔을때 많은 군인이 무엇인가 항상 먹거나, 씹으며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들은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입운동

供給과 施肥, 農藥供給, 種子改良, 農作機械化, 收買價格의 合理的策定, 協業化에의 邁進 등등 綜合的인 對策이 有機的關係에서 最大의 效果를 거두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와같은 穀類中心으로의 傳統的인 食糧問題 解決意欲과 方法만으로는 對處할 수 없으리만큼 食糧問題는 難題中の 難題로 化해진 것이다. 한마디로말해서 앞으로 아무리 高率의 食糧增産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人口增加에 따르는 需要增加를 뒷받침 할수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量의 原料로 많은 量의 食品을 만들어 내는 原料節約的인 食品工業이 急速度로 育成되고 汎國民的인 運動이 結實하여 食糧의 消費節約이 끈질기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米食第一主義의 時代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의 人口增加와 米穀增産의 2가지 豫測比較로 보아서도 米食爲主時代에서 脫皮해야 하겠거니와 하물며 卡路리의 面에서도 粉食이 優位하고 있음에 서라 小麥紛을 主原料하는 品目이 많은 食品工業의 「時의 利」는 實로 여기에도 많이 있다고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즐겼는데, 우리는 그 당시 그것이 몹시 신기하게도 생각되었고, 때로는 예의범절이 없다고 담속으로 무시하기도 했지만, 한편 먹는 즐거움을 그처럼 철저하게 즐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없을 것이란 느낌도 들었었다.

우리도 80年代에 들어서면서 국민소득이 1,000弗이 넘을 것이라 한다. 반가운 이야기이다.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침인사가 “밥 먹었나, 또는 진지 잠수셨습니까?” 였던가.

우리 나라의 Snack 食品도 앞으로는 좀더 다양하게, 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하여 발전시킴으로서 온 국민이 즐겨서 남들처럼 먹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일등국민의 영역을 구축해야 하겠다.